

新羅 왕경 내 市場의 위치와 운영 *

金 昌 錫 **

- 1. 머리말
- 2. 神市(신시)인가, 神市(신불)인가?
- 3. 시장의 위치와 운영
 - 1) 성립과 위치
 - 2) 운영과 기능
- 4. 맺음말

1. 머리말

신라에서는 508년(지증왕 9)에 東市典이 설치되었다.¹⁾ 이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중앙 관부 중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이다. 다른 관부에 관한 기록의 누락을 생각할 수 있으나, 517년(법흥왕 4)에 설치된 兵部와 더불어 市典이 초기 관부 군에 속했음을 분명하다. 신라의 왕권이 도성에 있는 市場의 관리와 운영을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高麗의 경우에도 태조 2년에 松嶽으로 천도한 후 궁궐을 짓고 여러 관사를 설치하면서 京市를 두었다.²⁾

* 이 논문은 2016년 8월 24~25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주최의 “문헌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요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 『三國史記』卷38, 雜志7 職官 上 “東市典 智證王九年置 監二人 位自奈麻至大奈麻爲之(중략) 史四人.”
2) 『高麗史』世家 卷1, 太祖1 “二年 春正月 定都于松嶽之陽 創宮闈 置三省六尚書官九寺 立市廛 辨坊里 分五部 置六衛.”

한국 고대사회에서 市의 발생과 성격 변화 및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이뤄진 바 있다.³⁾ 그러나 신라의 경우 市肆와 3市(東·西·南市)가 왕경 안에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그 위치에 대해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각 기구 사이의 관계, 특히 市肆와 東市는 별개인지, 동일한 시장이었는지, 만약 별개였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고 시사가 이미 있는데 다시 동지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시장의 운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과 일본의 양상을 통해서 신라 시장의 운영 방식을 막연히 추정해왔다고 할 수 있다. 관련 문헌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해서 이러한 연구의 난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사료, 후대의 자료라고 할지라도 재검토하고 原典을 추적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聖德大王神鐘銘」과 『三國史節要』의 관련 자료를 유의할 것이다.

신라의 시장을 포함하여 한국 고대 市의 기능과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시장 遺構를 확인하여 그 내부 구조, 시설, 주변 공간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문이지만, 그간의 集安 國內城, 평양성, 공주의 공산성, 사비도성, 그리고 경주 지역에서 이뤄진 수많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관한 유구나 유물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듯하다. 여러 사정이 있었으리라 짐작되지만 고대국가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위상과 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하지 못했던 점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 글은 경주 분지 안에 있던 신라 시장의 위치와 운영 방식을 검토하여 기성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관련 고고학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문헌자료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나 오히려 이 연구를 계기로 하여 향후 고고학 조사에 참고가 되고 문헌사 쪽에서도 한국 고대의 시장과 상인에 관한 연구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3) 김창석, 2004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2. 神市(신시)인가, 神市(신불)인가?

한국 고대의 시장을 검토할 때 이른바 ‘신시’에 대해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문헌기록에 나오는 ‘市’ 관련 자료로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기 때문이다.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 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⁴⁾

종래 이를 일반적으로 ‘신시’로 읽었고, 국내에서 1927년 崔南善 교감의 『三國遺事』가 출간된 이래 거의 모든 활자본에 ‘神市’로 실려 있다. 이러한 독법을 따라서 중국 고대의 市의 종교적 성격을 언급할 때 고조선의 신시가 방증 자료로 활용되었고,⁵⁾ 필자 역시 신시를 한국 고대 市의 원형으로서 이해한 바 있다.⁶⁾

그런데 ‘시’자의 어원이 祭服을 뜻하는 ‘불(市: 巾 부에 1획. 巾에 가로획을 그은 형태임)’자라는 지적이 있었고,⁷⁾ ‘시’자를 아예 ‘불’로 읽고 이 글자가 수풀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神市(신불)’은 신성한 수풀을 가리킨다는 이해가⁸⁾ 있었다. ‘불’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복식의 일부로서 ‘轍’자와 통하고, 또는 초목이 무성한 모양을 가리킨다.⁹⁾

신시인지, 신불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삼국유사』 판본에 대한 정밀한 교감이 필요하다. 그간 유통되고 있던 판본은 자획이 분명하지 않아 ‘시’와 ‘불’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차이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3년 공개된 파른본(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을 통해서 판독의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다.

4) 『三國遺事』 卷1, 紀異1 古朝鮮.

5) 李成九, 1991 「中國古代의 市의 觀念과 機能」 『東洋史學研究』 36, 20-23면.

6) 金昌錫, 1997 「한국 고대 市의 原形과 그 성격 변화」 『韓國史研究』 99 · 100.

7) 姜英卿, 1984 「韓國 古代의 市와 井에 對한 一研究」 『원우론총』 2, 숙명여대대학원원우회, 9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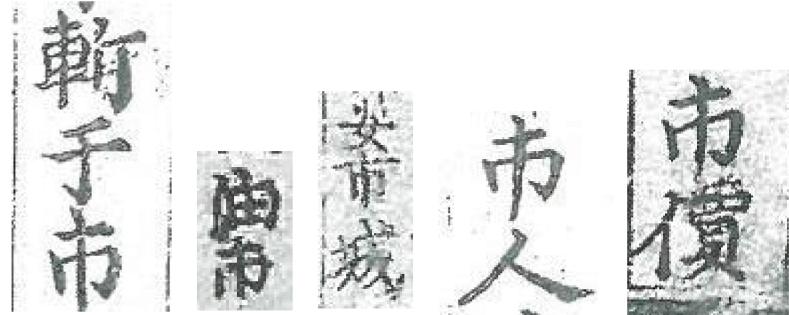
8) 李成珪, 2002 「문헌에 보이는 한민족문화의 원류」 『한국사1 (총설)』, 국사편찬위원회, 157-158면.

9) 諸橋轍次, 1984 『修訂版 漢和大字典 四』, 大修館書店, 397면.



왼쪽 <그림 1>의¹⁰⁾ 두 번째 글자를 ‘시’자로 볼 수 있을까? 세로획이 상대적으로 길어 전체 자형이 細長하게 보인다. 특히 가로획을 경계로 하여 위쪽으로 올라간 부분이 길게 처리되었다. ‘시’자는 이 부분이 점 형태의 ‘丶’이기 때문에 짧게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른본에서 ‘시’가 분명한 글자를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파른본 (이하
동일)의
‘神市’



<그림 2>
‘軒于市’

<그림 3>
‘油市’

<그림 4>
‘安市城’

<그림 5> ‘市人’

<그림 6> ‘市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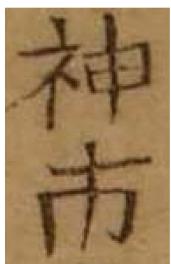
이들은 모두 윗머리 부분의 길이가 짧고, 중심축에서 왼쪽으로 기울이거나 ‘ㄱ’ 형태로 꺾어서 표현했다. 이러한 처리는 윗부분이 아래 부분의 세로획에 이어지지 않는 독자적인 획, 즉 ‘丶’임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위의 ‘神市’을 다시 보면, 두 번째 글자의 세로획은 가로획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세로획을 길게, 그리고 꺾지 않고 거의 일직선으로 그은 것은 이 글자를 ‘시’자와 구분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인다. 따라서 파른본의 위 글자는 ‘神市(신불)’이라고 읽는 것이 순리이다.¹¹⁾

파른본은 1394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¹²⁾ 그렇다면 다른 판본의 상황은 어떨까? 현재 널리 보급되어 있는 1512년 간행의 壬申本 가운데 규장각

10) 이하 파른본의 사진은 연세대학교 박물관, 2016 『파른본 삼국유사 교감』, 혜안에 실린 영인본을 활용했다.

11) 위의 책, 58면에서는 여전히 이를 ‘神市(신시)’라고 교감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정정 혹은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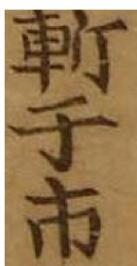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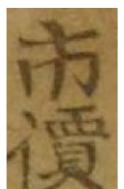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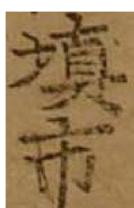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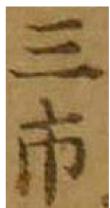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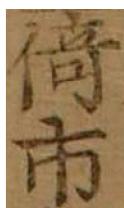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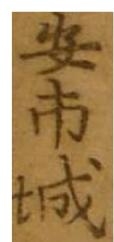
12) 하일식, 2016 『일연과 『삼국유사』, 파른본의 특징』 『파른본 삼국유사 교감』, 혜안, 17면.



소장본(국보 306-2호)을 살펴보자.

〈그림 7〉의¹³⁾ 두 번째 글자는 판별이 어렵다. 파른본과 비교하면, 세로획이 짧고 윗부분이 쪘기 모양으로 잘록하게 처리되어 마치 ‘ヽ’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별 의심 없이 ‘시’로 읽어온 것이다. 그러나 가로획을 중심으로 하여 세로획의 위와 아래 부분이 끊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규장각 소장본에 나오는 아래의 ‘시’자와 비교해 보자.

규장각 소장
임신본(이하
동일)의 ‘神□’

〈그림 8〉
'安市城'〈그림 9〉
'油市'〈그림 10〉
'斬于市'〈그림 11〉
'市價'〈그림 12〉
'市人'〈그림 13〉
'市中'〈그림 14〉
'墳市'〈그림 15〉
'三市'〈그림 16〉
'倚市'〈그림 17〉
'朝市'〈그림 18〉
'入市'〈그림 19〉
'安市城'

위의 ‘시’자들은 대부분 윗머리의 길이가 짧고, ‘ㄱ’ 모양으로 꺾여 있다는 점

13) 규장각 소장본의 사진은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자료를 이용했다(<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

이 파른본의 ‘시’자와 공통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그림 19>의 ‘安市城’과 <그림 18>의 ‘入市’는 ‘시’자가 분명하지만 세로획이 상대적으로 길다. 첫머리가 ‘ㄱ’자 형태로 꺾여 있지만 ‘丶’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이고 오히려 아래로 이어지는 세로획의 시작 부분으로 보인다. 이처럼 규장각 소장본은 ‘시’와 ‘불’자가 구분하기 힘들게 판각되었으므로 ‘神市’의 경우 어떤 판독이 옳은지 단정할 수 없다.

파른본의 ‘神市’은 ‘신불’로 보이지만 대표적인 판본이라 할 수 있는 임신본에서 그 자형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신불’로 확정할 수는 없다. 파른본의 목판을 새길 때 ‘시’를 ‘불’로 誤刻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선 초기 간행본 가운데 파른본 외의 다른 판본에서 ‘신불’로 읽을 수 있는 자형이 확인되거나, 현재 전해오는 여러 판본이 간행될 때 그 대본으로 삼은 자료가 출현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른본에서 ‘신불’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신시’로 단정하여 고대 시장의 기원 문제를 다루는 데 활용하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3. 시장의 위치와 운영

1) 성립과 위치

508년에 설립된 東市典은 東市의 운영을 관장한 부서였다. 그렇다면 동시는 언제, 어디에 설치되었을까?

春正月 置京都東市¹⁴⁾

동시는 509년에 설치되어 동시전보다 오히려 1년 늦게 두어졌다. 두 기록 중 하나를 촉오라고 하여 동시와 동시전이 같은 해에 설치되었거나 동시가 시전보다 먼저 두어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뚜렷한 근거는 없다.¹⁵⁾ 어떤 기구가 먼저

14)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10年.

15) 예컨대 末松保和, 1954 「新羅佛教傳來傳說考」『新羅史の諸問題』, 東京:東洋文庫, 214-215면.

만들어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부가 나중에 들어섰을 것이라는 추정은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일 뿐 모든 시기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적극적인 반증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사료를 존중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렇다면 신라에서 시전이 시장보다 먼저 설립된 배경은 무엇일까?

三月 龍見鄒羅井 初開京師市肆¹⁶⁾ 以通四方之貨¹⁷⁾

490년에 추라정이라는 우물에 용이 나타났고 이때 처음으로 서울에 市肆를 열었다고 한다. 두 사건은 별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인다. 신라 사회에서 용과 시장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름에 크게 가뭄이 드니 市를 옮기고 龍을 그려 祈雨祭를 지냈다.¹⁸⁾

용은 물과 관련된 존재로 믿어졌으므로 龍神에게 비를 기원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이때 시장을 옮기고 그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것은 신라인들이 시장을 용신의 住處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물(井) 역시 물이 솟는 곳이므로 용이 머물 수 있는 곳인데, 드디어 소지마립간 12년에 추라정이라는 우물에서 용이 출현했다. 용은 상상의 동물이므로 실제로는 우물 근처에서 돌풍으로 인해 용오름 현상이 나타났거나 특이한 형상의 뱀, 물고기 종류가 잡혔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하여 市肆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소지마립간 대에 상업시설이 설립되어 운영된 바 있으므로 신라 정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인 시장으로서 東市 설립 구상을 세웠을 것이다. 東市典이 먼저 설치된 이유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위해서였

면의 경우 本紀와 志의 기년이 서로 달리 기록된 사례를 들어 『三國史記』를 편찬할 때 청원법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으나 막연한 추정일 뿐 적극적인 근거는 없다.

16) '肆'자는 『삼국사기』壬申本과 옥산서원본에 걸락되어 있으나 통상 『三國史節要』卷5, 齊永明 8年 條를 따라 보궐하여 읽는다. 『삼국사절요』가 저본으로 이용한 『삼국사기』는 조선 초 이전의 판본이므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17)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昭知麻立干 12年.

18) 위의 책,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50年.

다고 생각된다.

시사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市와 井이 상호 연동되어 있었음이 주목된다. ‘市井’은 요즘에도 탈속이 아닌 세속의 세계, 그 중에서 朝廷과 官人으로 대표되는 公共의 세계가 아닌 일반 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을 가리킬 때 쓰인다. 그런데 市井의 기원은 중국 고대사회로 소급된다. 외부에서 들어온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우물에서 씻어야 했다는¹⁹⁾ 고전적 견해로부터, 金文을 보면 井이 刑을 의미하므로 시장이 형벌의 집행장으로 변질되면서 市井이라는 명칭이 생겼다거나²⁰⁾ 시는 우물과 무관하고 다만 당시 시장의 내부 공간을 ‘井’자 형태로 구획한 데서 유래했다고²¹⁾ 보기도 한다.

신라의 경우는 고대 중국과 다른 점이 엿보인다. 井이 시장 안의 격자형 공간 구획이 아니라 실제 우물이 시장과 관련되어 등장하고, 한국 고대국가에서도 棄市刑처럼 중죄인을 시장에서 처벌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후대의 사실이었다.²²⁾ 처음 市肆를 두는 계기가 된 鄒羅井은 사람들이 용이 산다고 믿은 실제 우물이었다. 신라의 시사는 우물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추라정에 대해서는 慶州府의 남쪽 7리에 있다고 하여²³⁾ 정확한 위치는 전하지 않는다. 조선시기의 경주부 읍성이 현재 경주시의 동부동, 북부동 일원(경주역 서편)에 있었으므로 추라정이 그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면 대략 남산의 서북쪽 기슭에 해당한다. 蘿井, 楊山이라고 알려진 유적과 南間寺址, 昌林寺址 같은 신라 초기의 주요 유적이 분포하는 곳이다. 주변에 포석정과 五陵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 믿을만한 것이라면, 추라정은 신라 건국설화가 전하는 사로국의 초기 핵심 공간에 자리 잡고 있으며 龍의 출현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시사는 어디에 두었을까? 두 가지 가능성성이 있다. 먼저 추라정 부근

19) 『初學記』卷24, 所引 應劭 撰 風俗通義 “市亦謂之市井 言人至市有所鬻賣者 當於井上洗濯
令香潔 然後乃到市也.”

20) 李成九, 앞의 논문, 48-49면.

21) 李晟遠, 2008 「고대 중국의 ‘市井’과 그 空間」, 『中國學報』 58.

22) 金昌錫, 앞의 논문, 95-97면.

23) 『新增東國輿地勝覽』卷21, 慶州府 古蹟.

에 설치되었으리라는 것이다. 남산 서북쪽을 신라 초기의 중심지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는데,²⁴⁾ 그 실제 여부를 떠나 나중에 이곳이 신라를 건국했다고 여겨진 박씨 세력의 근거지로 인식된 것은 사실이다. 시사가 추라정 근처에 있었다면 최초의 상업시설을 국가의 발상지에 건설한 셈이다. 용의 출현이나 시장에서 기우제를 지낸 사실을 통해서 한국 고대의 시장이 종교적·주술적 속성을 가졌다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소지마립간이 市肆를 설치한 목적은 ‘四方의 화물을 유통’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상업시설의 성격이 명확한 시사를 당시 신라의 신성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남산 서북쪽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하나는 王城 혹은 그 부근에 시사가 있었을 가능성이다. 위의 『삼국사기』 기록에 ‘京師’의 市肆를 열었다고 했다. 경사는 지방에 대비하여 王都를 가리킨다.²⁵⁾ 당시 왕도의 범위는 분명치 않으나 마립간 시기에 6部가 정립해 있었으므로 대략 현재의 안강읍을 제외한 경주시와 울산광역시의 북부를 포괄했다고²⁶⁾ 보인다. 꽤 넓은 공간인데 그 가운데 주목해야 할 곳은 역시 국왕의 居所인 왕성이다.

『삼국사기』 기록은 초기의 왕성이 金城이었고 파사니사금 22년에 月城을 쌓아 이거했다고 하지만²⁷⁾ 월성에 연못형 垣字가 설치되는 등 왕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은 5세기 이후라고 한다.²⁸⁾ 그리고 자비마립간 때 明活山城으로 이거했다가 소지마립간은 488년에 월성으로 복귀하여 거처했다. 시사가 설치될 무렵 신라의 왕성은 월성이었다.

봄 3월에 처음 사방에 郵驛을 설치하고 관사에 명하여 官道를 수리하게 했다.
가을 7월에 月城을 수리했다.²⁹⁾

24) 東潮·田中俊明, 1988 『韓國の古代遺蹟 1 新羅篇(慶州)』, 中央公論社; 박대재, 2014 「신라 초기의 國邑과 6村」 『新羅文化』 43.

25)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阿達羅尼師今 17년의 “秋七月 京師地震 霜雹害穀”은 이러한 경사의 개념을 잘 보여준다.

26) 전덕재, 2009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82-95면.

27)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婆娑尼師今 22年 “春二月 築城 名月城 秋七月 王移居月城”

28) 李相俊, 1997 「慶州 月城의 變遷過程에 대한 小考」 『嶺南考古學』 21; 金洛中, 1998 「新羅 月城의 性格과 變遷」 『韓國上古史學報』 27.

소지마립간은 시사를 설치하기 3년 전에 중앙과 지방 사이에 문서를 遞送하는 시설인 우역제도를 실시했다. 官道를 수리한 것은 우역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필요뿐 아니라 未久에 설치할 시사에서 판매할 물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7월에 월성을 수습하고 나서 다음 해에 명활산성으로부터 월성으로 이거했다. 그 2년 후에 시사를 설치했다. 487년의 우역제 실시, 관도 수리, 월성 수습 → 488년 월성 복귀 → 490년 시사 설치가 일련의 연쇄를 이루어 진행되었다. 좀 더 소급하면 469년에 왕도 안의 里, 坊의 이름을 정한 조치가³⁰⁾ 이와 연관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즉 5세기 중엽부터 왕도 내부 공간의 행정구역화가 시도되고 이를 文書行政을 통해 지방과 연결하며 물자 유통을 촉진하려는 일련의 정책이 市肆의 설치로 일단락을 맺었다.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면 시사는 왕도 안에서 중심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사를 두기 3년 전에 월성을 고치고 국왕이 이거한 사실을 유의하면 월성을 수습할 때 이미 시사의 설치가 예정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그렇다면 소지마립간 때의 시사는 월성 내부 혹은 월성 주변에 해자를 굽착하면서 그 주변에 두어졌을 것이다. 市에 용이 살고 있다는 신라인의 믿음은 또 다른 용인 王者가 살던 월성 내부 혹은 그 주변에 시사가 설립된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시사는 신라 정부가 처음으로 설치한 상업시설임을 감안하면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수 칸의 상가 건물에 불과했으리라 추정된다. 본격적인 시장은 지증왕 10년(509)에 설립된 東市였다. 그런데 동시에 대해서 효소왕 때 西市와 南市를 증설하면서 기존의 市肆를 서·남시와 대비하여 東市라고 부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³¹⁾ 있다. 이를 따르면 동시는 별개의 시장이 아니라 소지마립간 때 설치된 시사를 개편한 것이 된다.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온 바 시사의 위치는 월성 내부 혹은 그 주변에 있었다고 보인다. 효소왕 때 왕경의 시장을 증설하면서 시사의 위치

29)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昭知麻立干 9年.

30)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2年 “春正月 定京都坊里名.”

31) 李成市, 2007 「新羅王京の三市について」『古代東アジアの社會と文化』, 泊古書院, 425-428면.

를 뚫기지 않았다면 시사는 여전히 월성 혹은 그 주변에 있었을 터인데 그 시사를 과연 동시라고 불렀을까?³²⁾

동과 서의 방향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서시의 위치에 따라서 시사가 그 동쪽에 있게 되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소왕 대의 월성은 여전히 月城이었으며 왕경 내에서 方位를 가리키는 기준과 중심이 월성이었음을 분명하다. 월성을 기준으로 東宮, 北宮, 南宮이 구분되고 南山, 西岳, 東岳, 北岳이 명명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³³⁾ 이러한 상황에서 월성 혹은 그 근처에 있던 市肆를 동시라고 부른다면 혼란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동시는 시사와 다른 공간에 개설된 별도의 시장이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한 해 전에 미리 東市典을 설치했다고 이해된다. 동시의 위치는 어디일까? ‘동’ 시는 시사를 기준으로 하여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월성이 자리 잡고 있던 噬部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훼부 동편으로 韓祇部가 있었으나 당시 部體制 하에서 부 단위의 물자유통에 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시장 설치를 훼부의 왕권이 주도하여 다른 부에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下代의 기록이지만 한기부에는 ‘韓歧市’라는³⁴⁾ 별개의 시장이 있었다.

결국 훼부 지역으로 비정되는 경주 분지 안에서, 월성의 동쪽 지역에 해당하는 안압지~황룡사지~명활산~狼山의 공간에서 동시의 후보지를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이 가운데 안압지 부근은 월성과 근접해 있으므로 시사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시장을 둘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황룡사 동편은 일부 왕경 유적에

32) 진평왕 50년에 기우체를 지내기 위해 종래의 市肆를 동시 지역으로 뚫겼고, 효소왕 대 서시를 설치하면서 그 이름을 시사에서 東市로 바꿨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이현태, 2016 「新羅 王京의 里坊制 施行과 二元的 空間構造 形成」『문현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84-85면). 후대의 사례에 비춰보면 기우체를 지내기 위한 移市는 시장의 완전 이전이 아니라 임시적인 조치에 그쳤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때 시사를 동시 지역으로 이전했다면 지증왕 대의 東市典과 東市 설치 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의문이다.

33) 전덕재, 앞의 책, 221면. 단 근래 국립경주박물관 남쪽 부지 유적의 우물에서 ‘東宮衙’명 대부호가 나오고 건물지에서 ‘辛番東宮洗宅’명 청동접시가 발굴되어(新羅文化遺產研究院, 2014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 II』, 국립경주박물관) 동궁과 남궁의 위치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겼다.

34) 『三國史記』 卷44, 列傳4 金陽 “陽於是 突圍而出 至韓歧(一作漢祇)市.”

대해서 조사가 이뤄진 바 있는데, 황룡사 부지는 원래 龍이 산다고 믿어질 정도로³⁵⁾ 저습지였고 이곳에 있던 坊 유적은 7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고 한다.³⁶⁾ 따라서 6세기 초에 동시에 황룡사 주변에 두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百結先生이) 狼山 아래에 살았는데 집이 매우 가난하였다. 옷을 벡 번이나 기워 입어 마치 메추라기를 매단 듯하였다. 때에 사람들이 東里의 백결선생이라고 불렀다. (중략) 한 해가 저물려고 할 때에 이웃 里에서 좁쌀을 짹는데, 그의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양곡이 있어 짹는데, 우리만 없으니 어떻게 해를 넘길까요?”라고 말하였다.³⁷⁾

碓樂은 자비왕 때 사람인 백결선생이 지었다.³⁸⁾

백결선생은 자비마립간 대 인물인데 낭산 근처에 살았다고 한다. 그 마을을 ‘東里’라고 했으므로 월성에서 동쪽 방향으로 가서 낭산 아래쪽에 있었을 것이다. ‘동리’를 자비마립간 때 정했다는 里名의 하나로 볼 수 있을지는³⁹⁾ 단정할 수 없으나, 5세기 중·후반에 월성 동편에 몇 개의 마을이 있었고 ‘방아 짹는 소리가 들렸다’고 상징되듯이 옆 마을의 동향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마을들이 서로 근접해 있던 현상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낭산 부근에 지증왕 대 이전부터 취락 혹은 취락군이 형성되어 있었다.⁴⁰⁾ 단

35) 『三國遺事』 卷3, 塔像4 皇龍寺丈六 “新羅第二十四眞興王卽位十四年癸酉二月 將築紫宮於龍宮南 有黃龍現其地 乃改置爲佛寺 號黃龍寺。”

36)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新羅王京: 發掘調查報告書 I (本文)』, 554-557면.

37) 『三國史記』 卷48, 列傳8 百結先生.

38) 위의 책, 卷32, 雜志1 樂.

39) 申衡錫, 2000 「新羅 慈悲王代 坊里名의 設定과 그 意味」 『慶北史學』 23, 136-140면.

40) 『삼국사기』 열전은 崔致遠이 사랑부인이라고 했으나 『삼국유사』 혁거세왕 조는 “致遠乃本彼部人也 今皇龍寺南味吞寺南有古墟 云是崔侯古宅也 殆明矣”라고 하여 그가 본부인이고 미탄사의 남쪽, 즉 낭산 서쪽에 그의 遺址가 있다고 전한다. 이는 최치원이 원래 사랑부 출신인데, 나중에 낭산 서편에 살았으며 이곳이 中代에 里坊制가 확대 실시되면서 本部로 편제되었기(여호규, 2003 「新羅 都城의 儀禮空間과 王京制의 성립과정」 『新羅王京調査의 成果와 意義』, 國立文化財研究所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75면)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편적인 사료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서 유추하면 월성 동편에 저습지를 제외하고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살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전통적인 祭場의 하나였던 青松山, 神遊林이 월성의 동쪽 방면에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명활산성 방면 역시 동시의 입지로 상정 가능한데, 자비마립간 18년(475)에 이곳으로 이거하여 왕성으로 활용한 바 있으며, 동해안으로 빠지는 교통로 상에 있어서 물자유통의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헌자료 상으로 동시의 위치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상의 검토를 통해서 대략 안압지~황룡사지~북천~명활산성~낭산을 경계로 하여 이뤄진 월성의 동편 일원에 5세기 후반 이전부터 마을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으므로 동시가 설치될 여건은 갖춰졌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여 지증왕 때 설치한 동시가 격자형의 정연한 구조를 가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신라 왕경의 경우 里坊制(條坊制)은 빨라야 6세기 중반 이후에 실시되었다고⁴¹⁾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가 왕도의 중심이 아닌 동편에 설치되었다는 것 자체가 신라 왕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후 도시계획이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효소왕 4년(695)에 증설한 西市와 南市도 월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편과 남편에 있었을 것이다.

瓠公이 밤에 월성의 西里를 가는데 始林(鳩林이라고도 한다) 속에서 커다란 밝은 빛을 보았다.⁴²⁾

가을 7월에 金城의 西門에 불이 나서 번져 민가 (삼)백여 채가 불에 탔다.⁴³⁾

첫 번째 자료는 김알지 탄생설화의 일부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始林이 왕도의 서쪽에 있었다는 것은 『삼국사기』 기록을⁴⁴⁾ 통해서

41) 申昌秀, 2002 「新羅의 王京」 『강좌 한국고대사 7』,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42) 『三國遺事』 卷1, 紀異1 金闕智 脫解王代.

43)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味鄒尼師今 元年.

44)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脫解尼師今 9年 “春三月 王夜聞金城西始林樹間有鷄鳴聲 遲明 遣瓠公視之 有金色小犢掛樹枝 白鷄鳴於其下.”

확인할 수 있다. ‘서리’는 단순히 서쪽 마을을 가리키거나 후대에 정해진 里名을 소급해서 기록한 것이다. 김알지 설화가 체계화된 시기는 김씨 족단 출신으로 처음 왕위에 오른 미추니사금 이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미추니사금 재위 연대 무렵에는 월성의 서편으로 시립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金城의 위치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주지하듯이 초기의 금성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하지만 “파사왕 22년 금성 동남쪽에 城을 쌓아 월성이라고 했다”고 하므로⁴⁵⁾ 금성은 월성의 서북쪽에서 찾아야 한다. 금성의 서문에 인접해서 민가가 100채 넘게 있었다면 이 마을은 분명히 월성에서 보아 서쪽에 있었다. 5세기를 중심 연대로 하는 積石木櫛墳이 황남동, 노서동, 노동동 등 월성의 서편에 집중해 있는 것도 그 전에 이 일대에 취락이 형성된 상태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남시에 관해서는 관련 사료가 전무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추라정 추정지, 즉 남산의 서북쪽 기슭이 斯盧國 주도 집단의 초기 정착지 가운데 하나라면, 이 지역에 점차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개설의 필요가 높아졌으리라는 전제 아래 남시의 입지 후보지로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운영과 기능

지증왕 대 東市가 개설될 때 市肆보다는 넓은 공간에 다수의 점포 시설, 창고, 도로 등을 갖추었을 것이다. 이것이 市와 市肆의 차이이다. 7세기 후반에 唐制를 수용하여 里坊制가 본격 실시되면서 설치된 西·南市는 당 長安城과 일본 平京城의 東·西市에서 확인되는 격자형 도로와 운송로, 市門, 그리고 市樓와 같은 관청 건물을 갖추었을 것이다. 기성의 東市는 효소왕 대 서·남시를 중설하면서 이에 준하여 시장 시설과 운영체제를 확대·정비했으리라 예상된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소지마립간 대의 市肆가 신라 최초의 시장은 아니라는 점이다. 有無相通 차원의 호혜적 교역은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늦어도 신석기시대에 시작되었다.⁴⁶⁾ 시사가 설치되기 전 王都 내외 곳곳에서 물물교환

45) 『三國史記』 卷34, 雜志3 地理1 “初赫居世二十一年 築宮城 號金城 婆娑王二十二年 於金城 東南築城 號月城 或號在城.”

과 상업활동이 벌어지고 교역이 반복됨으로써 거래 장소와 개설 주기가 일정해 졌을 것이다. 자연발생적인 시장이다.⁴⁷⁾

남자는 머리털을 깎아 팔고 검은 두건으로 (머리를) 가린다. 市에서는 모두 부녀가 판매한다.⁴⁸⁾

中代末 王 경의 시장에 머리털을 파는 남성이 있고 다수의 부녀자들이 물건을 팔았다고 한다. 이들은 專業 상인이 아니라 가내 수공업품 등을 내다 파는 일반 주민이었다. 市肆와 東市를 두기 전에도 이런 형태의 부업적 상행위가 있었고 일부 전업 상인도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새로운 상업 공간과 시설을 만든 것은 王都의 지배기구와 주민에게 소용품을 조달하고 상업활동에 개입하여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였다. 상인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켜 중개 차익을 얻을 뿐 비 생산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이를 근절할 수 없고, 원격지로부터 물자가 왕도로 올라와야 하는 경우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상업을 통해 물자유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唐長安城과 奈良時期平城京의 동·서시를 보면, 정부가 시장의 開市와 폐장 시간, 거래 품목, 가격, 도량형 등을 규제하고 상인은 市籍에 올려 관리했다. 신라는 물론 고구려, 백제 역시 국가가 간여하는 시장이 운영되었는데,⁴⁹⁾ 중국 및 일본의 고대 시장과 기본적인 성격을 공유했다고 보인다. 신라는 각 시장을 관리하는 관부로서 市典을 두었는데, 관원을 보면 장관인 監 2명이 있고 그 하에 大舍 2명, 書生 2명, 史 4명이 각 시전별로 소속되어 있었다. 東市典에 대해서는 監으로 임명될 수 있는 관료의 관등 범위가 나마~대나마이고, 大舍의 관

46) 김창석, 2013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1-13면.

47) 중국 고대에 도시 城內의 시장뿐 아니라 郊外, 도시로부터 꽤 떨어진 취락에도 常設市 혹은 定期市가 존재했으며 戰國時期를 거치면서 市制가 시행되어 국가의 중앙·지방 행정 기구에 포섭되었다고 한다(佐原康夫, 2002 「漢代の市」『漢代都市機構の研究』, 汲古書院).

48) 『新唐書』 卷220, 列傳145 新羅.

49) 『三國史記』 卷45, 列傳5 溫達 “初買馬 公主語溫達曰 慎勿買市人馬 濁擇國馬病瘦而見放者 而後換之”: 卷26, 百濟本紀4 三斤王 2年 “春 佐平解仇與恩率燕信聚衆 據大豆城叛 (중략) 撃殺解仇 燕信奔高句麗 收其妻子 斬於熊津市.”

등은 舍知~나마로 나와 있다.⁵⁰⁾ 감과 대사 모두 5두품 이상이라야 가능했다. 書生과 史는 규정이 보이지 않으나 다른 관부의 예를 감안하면 4두품 출신이 임명되었을 것이다. 서시전과 남시전은 동시전과 동일 규정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직관지에서는 기록이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골품 규정은 법흥왕 때律令을 반포한 이후 만들어졌을 것이므로 비록 동시전이 지증왕 대 설치되었지만 창설 당시의 관원은 소수였고, 효소왕 때 서시전, 남시전을 두면서 이에 준하여 동시전의 관원을 증원하고 계서화 했다고 생각된다.

왕도의 시장을 국가가 개설하고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관부를 설립했다는 것 자체가 동·서·남시의 3市가 자연발생적인 민간시장과는 성격과 기능이 달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국가적 유통기구의 일환으로서 정부의 강한 통제력이 작용한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官市라고 부른다.⁵¹⁾ 市肆는 본격 시장은 아니지만 관시의 맹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사를 어느 관부가 담당했는지 언급이 없다. 자료의 누락일 수 있으나 신라 초기의 중앙 행정이 조직화된 관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왕이 사안에 따라 手下의 인물에게 지시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체계였으므로 어느 특정 인물이 市肆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粟主의 직임을 맡은 인물을 상정할 수 있겠다. 품주는 재정과 왕정의 기밀을 담당했으므로⁵²⁾ 市肆는 주로 王室 소용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왕실이 품주를 통해 시사를 직할하지 않았을까 한다. 시사의 이러한 기능이 월성 내부 혹은 그 주변에 시사가 입지하는 배경이 되었으리라 본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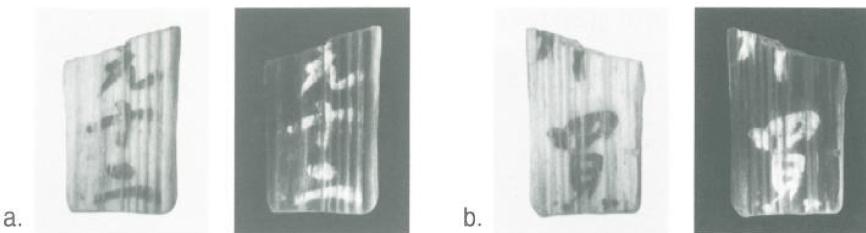
8세기를 중심으로 사용된 안압지 木簡 가운데 237번은 ‘買’자가 확인되어 왕실 혹은 동궁이 어떤 물품을 구입해 썼음을 알 수 있게 한다.

50) 『三國史記』卷38, 雜志7 職官 上 東市典 “智證王九年置 監二人 位自奈麻至大奈麻爲之 大舍二人 景德王改爲主事 後復稱大舍 位自舍知至奈麻爲之 書生二人 景德王改爲司直 後復稱書生 位與調府史同 史四人。”

51) 金昌錫, 2002 「三國 및 統一新羅의 官商과 官市」 『강좌 한국고대사 6』,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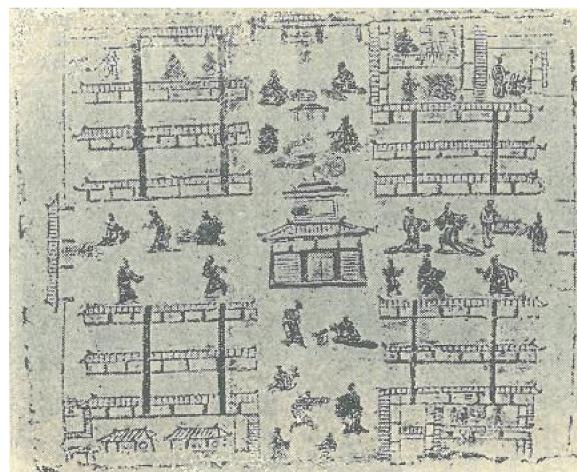
52) 李基白, 1974 「粟主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53) 시사는 지증왕 대 동시가 두어진 이후 한동안 병존했으나 점차 기능이 동시로 흡수됨으로써 쇠퇴의 길을 걸었을 가능성 있다. 품주가 調府, 倉部 등이 분치되면서 약화되는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고 보는 것이다. 市肆가 소지마립간 대 설치 기사 이후 사료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될 수 있다. 이는 蘆重國 선생님의 지적에 따른 것이며, 이에 감사드린다.



〈그림 20〉 안압지 출토 237번 목간(함순섭, 2007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안압지 목간의 새로운 판독」『新羅文物研究』創刊號)

a면은 “…元十二” b면은 “…斤(?) 買”라고 읽힌다. a면의 첫 글자는 ‘九’로도 보인다. b면의 ‘斤’을 인정할 수 있다면 “몇 균을 샀다”는 한국어순의 해석이 가능하고, a면은 구매의 대상이 된 물품의 이름과 개수(12 또는 92)를 썼다고 보인다.⁵⁴⁾



〈그림 21〉 사천성 신번현 출토 ‘市井’ 화상전의 탁본
(堀敏一, 1988 「中國古代の市」『中國古代の法と社會』,
汲古書院)

54) 안압지 목간 190번에서 ‘良價’(이용현, 2007 「안압지 목간과 동궁(東宮) 주변」『역사와 현실』65), 191번에서 ‘△賣’를(李文基, 2012 「안압지 출토 木簡으로 본 新羅의 洗宅」『韓國古代史研究』65) 판독해내어 물품의 매매를 상정한 견해가 있으나 아직은 판독안이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

시전의 관원 중 일부는 시장에서 근무했던 듯하다. 중국 四川省 新繁縣에서 출토된 漢代의 화상전을 보면, 시내부가 도로에 의해 십자형으로 구획되어 있고 그 중앙에 市樓(旗亭) 건물이 서 있다.⁵⁵⁾ 시루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을 두었다.⁵⁶⁾ 일본은 平城京의 동·서시에 市司가 있어 중앙 관사가 이를 통해 물품을 구입했다.⁵⁷⁾

우리의 경우 高麗의 京市를 보면, 만월대의 동문에서 十字街에 이르는 중심 도로가 南大街인데, 남대가의 양측에 長廊을 설치하여 상점을 열었다. 그리고 십 자가에 있던 京市署와 街衢所가 각기 경시의 관리, 감독과 치안 유지를 맡았다.⁵⁸⁾ 신라의 경우 市典의 관사 건물이 어디 있었는지 문헌에는 기록이 없다. 3시의 시전이 따로 있었으므로 각 시장에 담당 시전을 두었거나, 3시전이 다른 관부 건물과 함께 월성 부근에 모여 있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史와 같은 실무 관료는 현장에 파견되어 각 시장에 있는 사무소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에 印觀과 署調라는 두 사람이 있었다. 인관은 市에서 縱을 팔았다. 서조가 곡물로써 이것을 사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솔개가 나타나 면을 채가서 인관의 집에 떨어뜨렸다. 인관이 이를 가지고 市로 돌아가서 서조에게 말하기를 “솔개가 당신의 면을 내 집에 떨어뜨렸으니 이제 돌려드립니다.” 서조가 말하길 “솔개가 면을 채서 당신에게 준 것은 하늘의 뜻이니 어찌 내가 받겠습니까?” 인관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의 곡물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조가 말하길 “내가 당신과 거래한지 벌써 이틀이 되었으니 곡물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두 사

55) 사천성 신변현은 後漢 때 蜀郡의 繁縣이 있었다. 따라서 이 화상전은 후한대 현급에 설치된 市의 양상을 보여준다고(渡部 武, 1991 「市場のにぎわい」『畫像が語る中國の古代』, 平凡社, 206-208면) 할 수 있다. 신라에서 이와 같이 小京, 州·郡·縣 등 지방의 치소에도 官市를 두었는지는 미상이다. 하대의 자료인 「寶林寺 普照禪師塔碑」을 보면, 長沙縣의 副守인 金彥卿이 녹봉을 덜고 私財를 내어 鐵을 사고(市鐵二千五百斤) 비로자나불을 주성하여 가지산에 머물던 선사에게 시납했다고 한다. 당시 김언경이 장사현의 관료였으므로 縣治에 있던 시장에서 철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방의 官市 존부 문제는 앞으로 관련 사료를 추적하고 고대의 지방도시에 대한 고고학 조사를 기다려 접근하고자 한다.

56) 堀敏一, 1988 「中國古代の市」『中國古代の法と社會』, 汲古書院, 127-128면.

57) 榎原永遠男, 1992 「東西市と律令制」『奈良時代流通經濟史の研究』, 城書房.

58) 서성호, 2002 「개경의 시장」『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비평사.

람이 서로 양보하여 면과 곡물을 함께 市에 두고 돌아갔다. 掌市官이 이를 아뢰니 왕이 두 사람에게 관작을 내렸다.⁵⁹⁾

1476년에 盧思慎, 徐居正 등이 편찬한 『삼국사절요』에 위와 같은 흥미로운 기록이 실려 있으나 典據를 밝히지 않았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없는 기록이다. 『삼국사절요』의 서문을 보면, “舊史, 史略을 취하고 겹하여 遺事와 殊異傳에서 채록하여 장편을 지었다”고 했으므로 지금은 전하지 않는 신라의 古記類에서 발췌했다고 생각된다.⁶⁰⁾

市와 掌市官이 등장하므로 이를 유례니사금 대의 사실로 볼 수는 없다. 지증왕 때 東市典과 東市가 설치된 이후 발생한 사건이 금욕과 겹양의 도덕적 윤색이 입혀져 설화화 되고 어느 때인가 시기를 유례니사금 때로 소급하여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특정 물품을 파는 상인이 활동하고 거래에 곡물과 같은 현물이 사용되며, 市典의 관리에 해당하는 掌市官이 국왕에게 사안을 보고하는 모습은⁶¹⁾ 신라 3시의 양상을 꽤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印觀의 거처가 시장 안의 가게와 분리되어 있는 점은 일본 고대 시장의 공간 구조와 일치한다. 일본의 경우 시장의 내부가 市屋 구역(관허의肆가 늘어선 공간)과 市町 혹은 市領 구역(市人の 거주구역)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⁶²⁾

특히 위의 자료에서 ①판매한 물품을 시간이 흐른 다음이라도 구매자에게 양도하고 ②거래 후 물품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가 환불을 해야 하지만 ③환불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사항은 법통왕대 반포한 律令이나 그 후 올령의 보완·개정을 거치면서 명문화된 규정이 아닐까 짐작된다.

59) 『三國史節要』 卷4, 儒禮王 15年.

60) 이 기사는 『東史綱目』 第二上 戊午年 條에 다시 실렸으며, 崔南善 編의 『三國遺事』는 新羅古事逸文이라 하여 부록으로 실었다.

61) “인관과 서조가 서로 양보하여 면과 곡물을 함께 市에 두고 돌아갔다”는 것은 다툼이 일어나자 이를 市典에 신고하여 관련 물품의 처리를 위탁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62) 中村修也, 1987 「日本古代の市の構造について: 市人・市籍人を中心として」 『史境』 15, 37-43면.

들에서는 농사에 힘쓰고 시장에는 濫物이 없었으며, 세상 사람들이 금, 옥을 싫어하고 문장을 송상했다.⁶³⁾

성덕왕의 치세가 盛代였음을 청송한 구절인데 여기서 ‘濫物’의 의미가 무엇일까? 시장에 넘치는, 즉 남아도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풍속이 검박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남물’은 율령에 나오는 법제 용어이다.

[律文1] 무릇 그릇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비단, 베 등을 行濫하거나 짧게 혹은 좁게 만들어 판 자는 각각 杖刑 60에 처한다(단단하지 않은 것을 行이라 하고, 진품이 아닌 것을 濫이라고 한다. 곧 橫刀나 화살촉을 만들 때 무른 쇠를 사용하는 경우 濫이 된다).

[疏1] 논의하여 말한다. 무릇 그릇으로 사용하는 물건 - 公私의 쓰임에 공급되는 것 - 과 각종 비단, 베의 종류를 行濫하거나 - 器用의 물건이 단단하지 않고 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 短狹한 - 비단 1필이 40척이 안 되고, 삼베 1端이 50척에 모자라며 폭이 1척 8촌이 되지 않는 것 등 - 물건을 판 자는 각기 杖 60에 처한다. 고로 『禮記』에 이르기를, “물건에 장인의 이름을 새김으로써 그 성실성을 살필 수 있다. 물건이 마땅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行濫한 물건은 官이 물수하고 短狹한 물건은 물주에게 되돌린다.⁶⁴⁾

당률에 ‘남물’을 진품이 아닌 물건이라고 규정했다. 예컨대 품질이 떨어지는 철로 제작한 칼과 살촉이 남물에 속한다. 이어지는 율문은 이러한 남물을 만든 장인은 물론 판매한 상인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적발하지 않은 관리를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정했다. 남물을 처벌했다는 것은 市에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 그 원료, 규격, 품질 등을 정부에서 정하여 工匠과 상인에게 강제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開市와 閉市의 시간과 절차, 시장 내 肆의 설치, 官과 私인의 거래, 도량형, 노비 · 가축 · 무기의 거래, 상인에 대한 課稅, 외국인과 교역이 이뤄지는 互市의 운영 등을 關津의 통행에 대한 규정과 함께 묶은 행정령이 唐의 關市令이며,⁶⁵⁾ 유

63) 「聖德大王神鐘銘」.

64) 『唐律疏議』卷26, 第418條 雜律30 造器用絹布行濫短狹而賣.

65) 仁井田陞, 1964 『唐令拾遺』, 東京大學出版會, 713-721면.

사한 내용이 일본의 養老令에 전한다.⁶⁶⁾

신라의 경우 관련 율령 규정이 전하지 않으나 당과 일본 奈良 조정이 정한 關市令과 기본 내용을 공유하는 행정령,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규정한 刑律이 시행되었음이 분명하다. 「성덕대왕신종명」의 ‘濫物’은 그 편린이라 할 수 있겠다. 문무왕 5년(665)에 絹과 布 1필의 크기를 개정한 조치⁶⁷⁾ 역시 상품의 규격과 거래에 관한 법령의 존재를 시사한다.

官과 私人이 거래한 사례는 고구려에서 확인된다. 『삼국사기』 온달전을 보면,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馬를 살 때 市人의 것 말고 國馬 중 수척한 것을 고르도록 한다.⁶⁸⁾ 이 역시 설화적 색채가 강하지만, 고구려 도성에 官市가 있었고 市籍者(市人)뿐 아니라 필요하면 관부가 직접 상업활동을 벌여 私的 개인을 상대로 판매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병들어 야원 말처럼 정부 보유 물자 가운데 품질이 떨어지거나 유효 기간이 다 된 물품을 처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官-私 거래의 원칙, 가격 기준 등이 율령 조항으로 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濫物의 제조를 막기 위해서는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세세하게 정해야 하는데, 수공업 생산을 담당한 內省의 해당 관부와 工匠府 등의 관사가 그格 또는 式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관리했다고 보인다.

市肆와 3시에 대해서 국가의 규제가 강한 대신 여기서 활동하는 상인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얻었다. 官市에서는 市籍에 오른 상인이 중심이었지만 일반 상인 혹은 임여 생산품을 팔러 나온 販夫販婦도 관시를 이용했다. 市籍人은 문서에 등록되어 국가의 통제를 받는 대신 시장의 肆, 즉 상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

66) 井上光貞 外, 1976 『律令』, 岩波書店, 441-445면. 양로율령 중 東·西市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市는 북소리에 따라 정오부터 해질 때까지 연다. ②肆마다 표지를 세운다. ③市司는 거래 가격을 3등급으로 나눠 10일마다 장부에 기록하고 계절마다 本司에 보고한다. ④官과 개인이 매매할 때는 中價를 기준으로 한다. ⑤저울, 자, 量器 등 계량용구는 담당 관사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⑥노비를 매매할 때 보증과 계약서(立券)가 필요하다. ⑦결손품, 위조품, 규격에 맞지 않는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된다. ⑧칼(橫刀), 창, 안장, 칠기 등에 제작자의 이름을 써넣는다. ⑨市 안에서 장사하는 경우 남녀는 자리를 따로 잡는다. ⑩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市에서만 거래해야 한다.

67)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5年 “舊以十尋爲一匹 改以長七步 廣二尺爲一匹.”

68) 『三國史記』 卷45, 列傳5 溫達 “公主語溫達曰 慎勿買市人馬 須擇國馬病瘦而見放者 而後換之.”

다. 이는 판매용 물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쓰였다. 이밖에 시장의 창고, 운송 시설과 치안 서비스가 시적인에게 제공되었을 것이다. 市는 많은 사람들의 집결처로서 惠空 스님이 노래 부르며 춤을 추던 문화의 공간이었고, 『三國遺事』 金現感虎 條의 호랑이의 난동으로 상징되듯 가끔은 무법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 일탈지대이기도 했다. 고려의 京市에 있던 街衢所는 일종의 경찰 업무를 수행했으며, 신라의 경우 별도의 경찰 기구가 없었다면 市典이 치안 유지 역할을 겸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소용품이 조세 수취로 충당되지 못하여 구입이 필요하면 관시에서 이를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보인다. 6~7세기의 유물인 월성해자 木簡 가운데 149번의 4면 목간은 ‘白’ ‘牒’ ‘敎’ ‘命’이 쓰여 있어 어떤 업무를 지시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⁶⁹⁾ 지시와 보고의 핵심 내용은 “經에 들여 쓸 종이를 구입하는(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 것이었다. 종이를 사용하여 經에 관한 일을 했다면 佛經을 寫經하는 사업이라고⁷⁰⁾ 생각된다. 이 종이는 왕경의 시장에서 구입되었을 것이다.

일본 나라시대에 寫經所가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758년의 「東市莊解」를 보면, 사경소가 구입할 품목과 수량을 적은 符를 동시 부근에 있던 東市莊에게 발급하면 莊領 2인이 동시에 이를 구입하여 報告 문서인 解와 함께 제출했다. 그리고 造東大寺司가 상급관청으로서 사경소와 東市莊을 관장했다.⁷¹⁾

월성해자 목간의 경우 佛事의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은데, 成典과 같은 정부 기구, 사찰 혹은 승려, 진골귀족을 상정할 수 있다. 755년에 작성된 「新羅華嚴經寫經跋文」에 따르면, 사경의 발원자는 황룡사의 緣起法師였고 시주자 順△는 왕경의 귀족으로 추정된다. 황룡사, 분황사 등의 왕경 소재 대형 사찰은 施主를 받고 자체 공방과 소속 僧匠을 활용하여 소용품을 생산했으나 종이와 같은 문방

69) 윤선태, 2005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133-138면.

70) 李成市, 2000 「韓國木簡연구의 현황과 咸安城山山城출토의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88면.

71) 禁原永遠男, 앞의 논문, 119-120면.



〈그림 22〉 월성해자 출토
149번 목간의 1면 컬러 및
적외선 사진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6 『韓國의
古代木簡』(개정판)]

구, 茶, 脖 등의 특수한 물품은 3시에서 구입한 듯하다. 각종 불사와 의례에는 다종의 물건이 필요했을 터인데 이를 가까이에서, 그리고 開市 시간이면 언제라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왕경의 시장이었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상인에게는 왕경의 일반 주민은 물론 정부 관서, 사찰, 귀족 등 고급 소비자가 확보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 중에서도肆에 입주해 있는 市籍者들이 그렇지 않은 露店 상인보다 품질이 좋은 물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진열 공간을 갖고 있었으므로 판매가 유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고려 말 강원도 회양에 있던 長安寺가 개경 京市의 長廊 30칸을 얻고 사람을 고용하여 운영한 것은⁷²⁾肆를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이 3시의肆에 입점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던 市人들은 시장의 시설을 이용하고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고급 구매자를 확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신라 왕실⁷³⁾ 혹은 정부는 이들로부터 별도

의 조세를 걷었으리라 추정된다. 이것은 일종의 상가 임차료이며 국가로부터 받는 여러 혜택과 정부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다. 중국 고대에 市에서 점포를 갖고 영업하는 賈는 市籍에 등록되었고, 미등록자는 시에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시적에 등재된 상인은 市租를 납입해야 했다.⁷⁴⁾唐 정부는 상인에 대한 세금 부과를 雜稅에 규정했다.⁷⁵⁾

신라 왕경인의 생활용품으로서 약재, 신발, 오곡, 과일, 채소, 육류, 삼베, 비단, 수레, 牛, 馬, 식기, 장신구 등을 문헌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72) 北村秀人, 1993 「高麗時代の京市の機能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31, 211-212면.

73) 前漢 시기의 市租는 국고가 아니라 황제 혹은 封君의 재정기구로 귀속된 바 있다(渡部武, 앞의 논문, 216면).

74) 影山剛, 1963 「中國古代の商業と商人」『古代史講座 9』, 學生社, 285-286면.

75) “其商賈 准令 所在收稅”(仁井田陞, 앞의 책, 721면).

통로로 입수되었으며 왕경의 官市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⁷⁶⁾ 市肆와 관시의 구매자로서 왕실과 관부, 佛寺 또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대의 시장은 이와 같은 물자유통 기구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祈雨祭가 거행되는 祭場이었고 중죄인이 시장에서 落市刑에 처해지는 등 다양한 기능과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신라 국가는 商稅를 수취하여 재정 수입을 늘리려 했고, 이를 위해서 市籍人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규가 율령 조항으로 제정되어 이들에게 강제되었으리라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4. 맷음말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글을 맺고자 한다.

한국 고대 市의 기원으로 단군신화에 나오는 神市(신시)를 주목하였으나, 연세대 소장의 『파른본 삼국유사』의 해당 글자는 '신시'가 아니라 '신불(神市)'로 판독되므로 이를 市의 일종, 나아가 시의 원형으로 놓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소지마립간 12년(490)의 市肆 설치가 신라에서 왕경의 시장체제가 성립되는 출발점이었다. 시사는 상가건물 정도여서 본격적인 시장은 아니지만 王室에 소용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증왕 대에 東市典 설립, 東市 개설(509)이 이어졌다. 市肆의 위치는 월성 내부 혹은 그 주변이라고 추정되며, 이는 시장을 龍 물, 우물과 관련지어 사고하던 신라인의 관념과 연결되어 있다.

東市는 시사와 다른 별개의 시장이며 市肆의 동쪽, 즉 경주 분지에서 월성을 기준으로 하여 동편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西市는 월성 서편, 南市는 월성의 남쪽에 두어졌다. 이들은 시사와 달리 본격적인 시장으로서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 점포 시설뿐 아니라 창고, 운송 시설, 관청 출장소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인다. 효소왕 때 서·남시를 중설하면서 동시의 시설과 운영체제도 이에 준하여 정비되었다.

76) 金昌錫, 2007 「왕경인의 소비생활과 교역」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8.

소지마립간 때 설치한 市肆는 물론 동시, 서시, 남시와 같은 왕경의 시장은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官市였다는 점이 기본 성격으로 주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운영과 상품의 규격·품질에 대한 규제, 市籍者에 대한 관리와 통제,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 규정이 율령에 정해져 있었다. 그 내용은 唐과 奈良 조정의 關市令을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성덕대왕신종명」에 나오는 ‘濫物’은 신라가 시장의 운영과 상거래를 법률로써 통제한 흔적이다.

시적자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대신 肆를 점포로 이용하고 창고, 운송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市典을 통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는 혜택을 누렸다. 그리고 이들이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정부가 규격과 품질을 관리했으므로 市籍者는 중앙 관부, 왕경의 대형 사찰, 귀족, 관료와 같은 고급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가로서 시적자는 왕실 혹은 정부에 商稅를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왕경의 시장은 물자 유통기구이고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라는 경제적 효용성과 더불어 주술적, 司法的, 문화적 성격과 기능도 갖고 있었다.

주제어 : 신라, 왕경, 시장, 月城, 商稅, 율령

투고일(2016. 7. 18), 심사시작일(2016. 9. 5), 심사완료일(2016. 9. 13)

〈Abstract〉

The Location and Management of Market Places in a Capital City of Silla

Changseok Kim*

Shin-si(神市). A sacred market) has received attention as the origin of marketplace in Ancient Korea. However, those letters can also be deciphered as *Shin-bul*(神市. A sacred forest) according to the woodblock-printed book Memorabilia of Three Kingdoms(三國遺事) preserved at Yonsei University. Therefore, Shin-si should no longer be regarded as the prototype of an ancient marketplace of Korea.

Shisa(市肆. Shopping stores) was the initial establishment of the market system in the capital city of the Silla Kingdom, providing the court with necessities, and led to the opening of *Dong-si*(東市. The east market). It has been suggested that Shisa was located inside, or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Wolseong*(月城. The royal palace) whereas Dong-si was located eastward of Shisa.

The marketplace in the Shilla Kingdom was regulated and managed by government, including the size, quality, and price of products, control over the merchants, and authority to punish rule violations were regulated in the law codes. Registered merchants were permitted use of marketplace facilities and public services. These merchants gained market access to governmental offices, Buddhist temples, aristocrats, and officials in exchange for paying the tax of commerce to the court or the state.

Key Words : Silla, Capital city, Market place, Wolseong(Royal Palace of Silla), Tax of Commerce, Law codes

* Prof. of Dep. of History Education at Kangwon Nat'l Univ.